

모든 학생이 행복한 미래	모든 교사가 행복한 수업
------------------------	------------------------

수업 태그

TALKS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가?

SPECIAL

나만의 수업브랜드, 나만의 수업디자인

수업 INSIDE

'랑랑랑' 미술수업

수업 人

우리 동네 테마지도 제작하기 / 사람책과 함께하는 거
모마을 희스토리

정책 ISSUE

고교학점제로 보는 미래교육

ESSAY

수업은 현재진행형

CLASS

함께라서 행복한 “우리반 단합대회”를 소개합니다.



사진설명 군자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주제통합수업시간에 만든 거모동 테마지도입니다.

역량기반수업연구회(#수업태그)

모든
학생이
행복한
미래

모든
교사가
행복한
수업

수업 태그

TAL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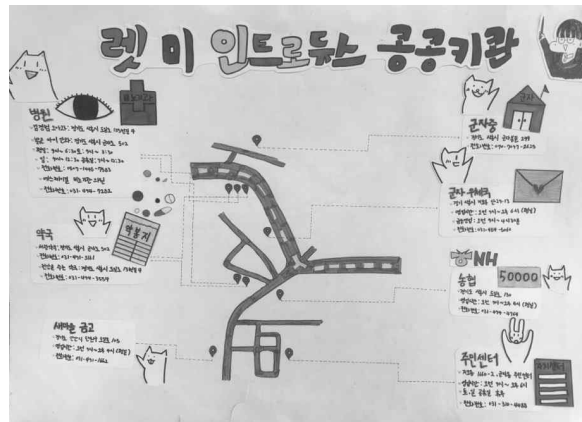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가?

SPECIAL

나만의 수업브랜드, 나만의 수업디자인

수업 INSIDE

'랑랑랑' 미술수업



사진설명 군자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주제통합수업시간에 만든 거모동 테마지도입니다.

수업 人

우리 동네 테마지도 제작하기 / 사람책과 함께하는 거모마을 히스토리

정책 ISSUE

고교학점제로 보는 미래교육

ESSAY

수업은 현재진행형

CLASS

함께라서 행복한 "우리반 단합대회"를 소개합니다.

역량기반수업연구회(#수업태그)



6

TALKS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가?

11

SPECIAL

나만의 수업브랜드, 나만의 수업디자인

18

수업 INSIDE

'랑랑랑' 미술수업

23

수업인

- (1) 우리 동네 테마지도 제작하기
- (2) 사람책과 함께하는 거모마을 히스토리

29

정책 ISSUE

고교학점제로 보는 미래교육

31

ESSAY

수업은 현재진행형

35

CLASS

함께라서 행복한
"우리반 단합대회"를 소개합니다.

41

CULTURE

교사동감, 교사생활월령기, 당갈, 보리 VS 맥켄로

#수업태그 우리들의 이야기

어떻게 수업할 것인가?



교사의 일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수업이 아닐까 싶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미 자신의 수업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 교사의 수업은 아이들을 향한 것이기에 서로의 수업을 들여다보기란 어렵다. 서로의 수업을 나누는 것은 그저 일상을 이야기 한다는 것보다 그 의미가 크다. 다른 학년, 다른 과목의 수업이라도 그것이 지금 나의 수업고민과 연결되어,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거나 수업 구상의 영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월 11일 #수업태그 세 번째 모임에서는 서로의 수업활동지나 활동자료를 통해 수업을 나누며 수업에서의 팁과 더 나은 수업을 위한 자극을 받는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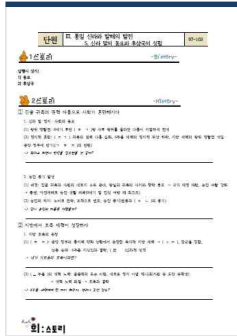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미술수업" _미술과 김소라

저는 이번에 아이들에게 '변하는 시대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수업과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활동지를 단계별로 구성함으로써 한 단계씩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고 1차시에서는 기사와 토론을 통한 생각열기, 2차시에서는 흑백변환아트를 활용하여 자기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진찍기 3차시부터 6차시까지의 작품제작시간, 마지막 7차시에서는 자기평가와 동료평가 활동지를 통해 정리활동을 하였습니다. 수업마무리시간에 서로 작품설명을 해주고 친구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이 시간을 통해 학생들이 다음시간에는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을지 계획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지 마지막에는 '선생님 말씀'이라는 칸을 넣어 학생들이 이번시간에 무엇을 배웠고 어떤 활동을 한 것인지 다시 알려주며 그 의미를 상기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가지고 수업을 하니까 평소 수업에 집중하지 애들까지도 꿈지락거리는 모습이 매우 귀여웠고, 학생들의 배움성찰일지를 통해 표현 재료였던 먹지와 포스터칼라에 대해 신기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제만큼이나 학생들에게 신선한 표현기법이나 재료를 연구하는 일이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정은 "선생님의 말씀 부분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의도를 짚어줌으로써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그림 그리고 논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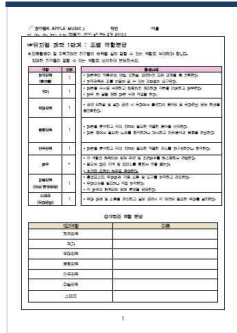
“상상력을 기르는 역사수업” _역사과 정송희

저의 수업활동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내가 거모동의 호족이라면?’ 혹은 ‘뭐라고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을 것 같아?’와 같은 어찌 보면 어이없는 질문을 넣어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역사적 상상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해보려 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저는 짝이나 모둠끼리 이야기를 해보라고 할까 아니면 모둠칠 판에 적어서 앞에서 반 아이들 모두와 나눔까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이정은 이 질문들이 역사를 재밌게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경미 프린트에 중요한 단어들이 자음으로 나와 있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맞추나요?

정송희 교과서를 보고 찾거나, 혹은 제가 설명한 후에 적어보도록 하여 정리하게 하였습니다.



“매년 발전하는 뮤지컬 음악수업” _역사과 정송희

저는 매년 꾸준히 하는 전문분야 하나, 새로 시도하는 것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뮤지컬은 제가 3년 동안 꾸준히 해오는 거라 처음보다 많이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너무 믿었는지 “스토리 짜보자”라고 하면 알아서 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 단계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목표를 제시해줘야 잘 따라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뮤지컬 학습지에서는 뮤지컬대본의 예시가 추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뮤지컬 수업 중 인트로 부분으로 상황에 맞는 음악 찾거나 연기 숨은보석찾기 등 뮤지컬과 친근해질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뮤지컬 수업이 힐링 수업입니다.

이정은 공연은 어떻게 하나요?

이경미 의자를 미루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서 음악실에서 공연을 합니다. 저희 학교에 세미나실이나 좋은 앰프, 마이크와 같은 시설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김소라 국어나 미술이랑 연계해서 교과통합수업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은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경미 뮤지컬의 구성요소를 넣었는지, 상황에 적절한 음악을 선택했는지, 연기력, 음악성, 극적인 흐름들을 보고 모둠별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1인1역 동료평가를 통해 개별평가를 합니다. 모둠점수가 20점 개인점수가 10점으로 주려고 합니다. 과정평가를 위해서는 하루하루 단계별 수행정도를 확인해서 도장을 주고 있습니다. 과정평가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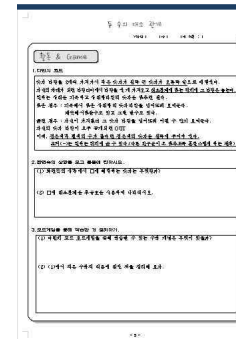
이정은 뮤지컬 발표하면서 의상도 가정이랑 통합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음식을 소개하는 영어수업” _영어과 김애라

저는 1학년 수업 프린트를 가져왔습니다. 읽기 부분이라서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단어와 모둠별 읽기활동을 하였습니다. 본문읽기를 총 3번하는데 처음 읽을 때는 큰 흐름을 알 수 있는 질문을 던져 그림이나 큰 제목을 훑어보며 그것에 대한 답을 찾도록 하였고, 두 번째에서는 모둠원이 힘을 합쳐 좀 더 세세한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기에서는 저와 함께 중요한 문장을 정리하며 1,2차 읽기활동에서 아이들의 활동을 관찰하였을 때 잘못하였거나 어려워하는 부분을 짚어주었습니다. 본문이 각 나라별 급식에 관한 내용이기때문에 오늘 우리학교의 급식메뉴를 알아보는 막간활동도 하였습니다. 다음시간엔 직접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나라를 골라 그곳의 음식을 소개하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조원별로 역할을 나누어 이름, 재료, 생김새, 우리나라에 있는 추천 맛집 등 여러 정보를 찾아 발표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발표한 것을 학생들과 다 같이 모둠별 평가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정은 학습지가 귀엽게 구성되어있네요.



“게임으로 배우는 수학수업” _수학과 정지인

저는 MSG(Math Study & Game)라는 수업브랜드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자료는 G-게임 시간에 한 활동지입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대소관계 순서를 맞춰보며 학습을 하고, 조별로 대결하여 스티커를 주었습니다. 이 때 음수를 배우고있기에 점수도 -10과 같이 음수로 주었습니다. 수의 대소관계와 음수라는 학습내용을 다빈치코드에 적용하여 게임활동을 해보았습니다. 기본 다빈치코드 타일을 변형하여 음수타일을 만들어서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카드로 연습시키는 것보다 보드게임으로 적용해서 하니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게임일지라도 뽐을 때마다 위치를 찾는 연습을 통해 대소관계를 적용하므로 적어도 한사람 당 6번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업 마무리에서는 이 게임에 어떤 수학내용이 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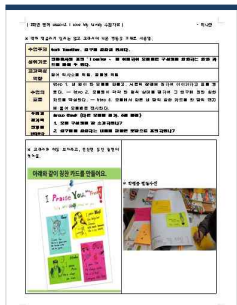
이정은 이런 수학수업이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업나눔할 때엔 사진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임은 몇 번씩 하나요?

정지인 큰 단락마다 한 번씩 합니다. 카드뒤집기, 할리갈리, 조별로 문제맞추기, 릴레이 문제풀기와 같은 게임도 합니다.

이정은 배우고 정리를 하는 것이 평가로 연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정평가도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지인 시험에 안나오다보니 시간낭비로 생각하는 학생도 있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행평가로 넣기에 답이 있고 한 것도 아니다보니까요.

이정은 모든 수업이 평가로 연계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평가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도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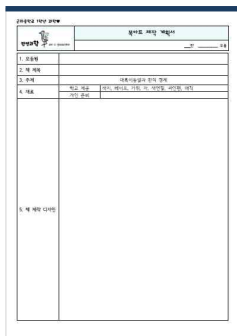


“서로의 칭찬을 통해 가까워지는 영어수업” _영어과 이나연

저는 1학년 가족칭찬단원부분 활동을 가져왔습니다. 조원 아이들 중 한 명을 칭찬하는 칭찬카드쓰기로 이때 배운 표현 “I praise”를 사용하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서로에게 칭찬을 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직 영어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틀을 주어서 아이들이 참고하여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활동한 것으로 갤러리 워크 활동을 하여 잘한 칭찬카드에 표시해보았고, 학급의 칭찬카드를 모아 학급의 뒤쪽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정은 영어나 수학 같은 과목은 수준이 많이 다른데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나연 저는 주로 잘하는 학생들이 도움을 주도록 합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설명을 잘 해서 멘토로 친구들을 도와주게 합니다.



“복아트를 활용한 과학수업” _과학과 박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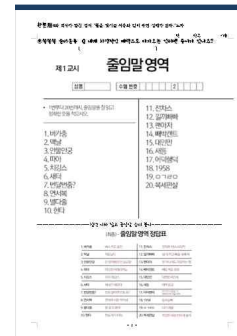
저는 자유학기제 책자에서 복아트를 발견하여 이번 지구과학부본에서 사용해보았습니다. 프로젝트활동으로 창의적으로 복아트 만들기를 하였는데, 예시를 보여주고 디자인하기 전에 미리 어떻게 해볼지 계획서를 작성하고 생각해보도록 하며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내용을 얼마나 잘 설명하였는지, 작품의 완성도와 창의성은 어떤지로 평가를 하였고 수업 후에 동료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 수업을 한 후에 영0이라는 학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원래 많이 혼내던 학생인데 이 활동 이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지인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참신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월드카페 병맛 미술수업” _미술과 김초은

저는 학생들이 미술을 전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음영 넣는 것보다 미술을 감상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료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동료평가지처럼 활동 후 서로를 평가하는데 우리학교 학생들은 착해서 그런지 ‘안 쓰면 점수 안 줘.’보다 ‘너가 안 쓰면 재가 점수 못 받아.’하면 매우 열심히 씁니다. 저는 월드카페를 이용한 수업을 했습니다. 6개 모듬이 커피, 텀실과 같이 다 다른 드로잉 재료를 이용하여 활동을 한 후 제일 잘한 아이를 MC로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 모듬으로 이동하며 한 바퀴를 돌아서 1시간동안 6가지의 드로잉방법을 배워보도록 하였습니다. 요즘 생각하고 있는 병맛 수업은, 주사위를 만들어서 굴려서 코끼리바퀴 세 번 돌고 앞으로가기와 같이 주사위 나오는 대로 이동을 하여 그 앞에 보이는 풍경을 그리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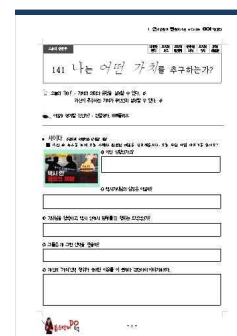
김소라 윗트 있으면서 삶이랑도 연결이 된 수업을 잘 구상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활과 연결 짓는 한문수업” _한문과 신수영

저는 이번에 사자성어를 가르치기 위해 도입부분은 줄임말영역을 넣어 흥미를 이끌고자 하였습니다. 사자성어도 한문을 4자로 줄인 것이라서 줄임말과 같은 맥락이기에 학생들의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 이후 첨병첨병 물장구에서 초성을 주어 쉽게 찾도록 하였습니다. 어퍼어퍼 자유형에서 사자성어를 배운 후 둠칫둠칫 둠칫도노래를 부릅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좋아해서 다음시간에 제가 한 소절 부르면 나머지를 다들 따라 부릅니다. 나비날다 접영에서 생활 속 고사성어 활용 네컷 만화 그리기를 비주얼씽킹을 활용하여 표현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유자적배영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것이 좋았는지 등등 수업활동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정은 수업생의 노력이 학습지에 들어가 있어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마음으로 느끼고 생각하여 배우는 도덕수업” _도덕과 이정은

저는 아시다시피 군만두수업 틀로 수업을 합니다. 저는 ‘효도하자’라는 짧은 말을 2시간 동안 어떻게 배움으로 이끌어야 할지 아직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배운 내용을 점검하는 ‘훈내폴폴’을 하다가 문득 ‘내가 인지적으로 가르쳐준 것이 없는데 뭘 배웠냐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지식적인 면이 없었기에 배우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애들아, 도덕은 지식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고 마음으로 배우는 시간이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 제 학습지의 훈내폴폴 발문을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고 배웠는지’로 바꾸었습니다. 도덕시간은 지식을 뽐내는 시간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라는 방향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수업을 나누고,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하며 모두가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다음 #수업태그 모임에서는 평가에 대해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평가는 교육활동의 열매라고 볼 수 있다. 배운 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많은 아이디어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아 기대가 된다.

글 | 김애라 (학생안전인권부) 편집 | 김소라 (혁신교육부)

특별 기획

나만의 수업브랜드 나만의 수업디자인

1. 수업 브랜딩이란 무엇인가?

브랜드(brand)는 고대에 드넓은 들판에서 방목하며 키우던 소를 다른 소와 구별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불에 달군 인두로 찍었던 행위에서 유래된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 브랜드는 어떤 판매자가 시장을 통해 제공하려고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여타 상품과 차별화하기 위해 만든 네임, 로고, 상표, 패키지'라고 할 수 있다.

기억나는 브랜드를 떠올려보자. 빨간 색과 함께 있는 북극곰을 보면 코카콜라가 생각나고, 누가 한 입 베어문 사과를 애플을 떠올린다. 노란 바탕위의 갈색 동그라미를 보면 카카오톡이 생각난다. 색깔, 기호, 동물 등 한 기업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과 요소는 많다. 그 상징들이 모여 그 기업의 이미지를 만든다. 잘 정제된 브랜드는 소비자를 열광하게 한다. 승리의 여신 니케를 본따 만들었다는 나이키의 로고가 갖고 싶었던 7-80년대 많은 한국의 학생들은 실내화에 손수 매직을 칠해 소장했고, 밀레니얼세대는 PK티셔츠 가슴팍에 자전거나 말이 있기를 열망했다. 아무런 장식없는 까만백에 PRADA라고 적혀있거나 알파벳 C가 겹쳐 있으면 수많은 여자들의 잇백이 된다. 브랜드의 로고 하나만으로 가치가 상승한다. 브랜드이미지 덕분이다. 브랜드는 우수한 상품일수록 더 가치가 있다.

수업브랜딩이란, 학생들에게 여타 수업과 차별화된 나만의 수업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 우리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시절까지 무수히 많은 수업과 무수히 많은 교사를 만난다. 그중 기억에 남는 수업이 있는가? 특징적인 교사가 떠오를 뿐 수업자체가 생각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배울 당시에는 대부분의 교사가 일관적으로 강의식 수업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수업의 네이밍만으로 그 수업이 누군가의 잊수업이 될 수는 없겠으나, 아! 이런 수업이었구나 예측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유학기제나 고교학점제에서 강좌를 개설하고 '군만두' 한 단어만 적어도 학생들은 그 수업에서 진행할 교과와 내용, 수업방향을 단박에 예측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수업브랜딩이다.

초등선생님들 중 수업브랜딩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제법 유명해져 이름만 들어도 아! 하는 분들이 늘었다. 참샘스쿨을 운영하시는 김차명선생님, 함행우란 브랜드를 사용하시는 나승빈선생님들이 그렇다. 참샘스쿨의 '교사가 최고의 콘텐츠다'라는 모토는 참샘의 철학을 반영한 멋진 카피이다. 함행우는 '함께해서 행복한 우리'의 약자로 나승빈 선생님께서 나선생님의 수업과 학급운동을 통해 어떤 아이로 자랐으면 하는가 하는 나승빈선생님의 학생상이 담겨 있다. 이처럼 교육브랜드는 그 교사의 철학을 담을 수 있다. 철학이 없는 교육브랜드, 교사브랜드, 수업브랜드는 울림이 없다.



선생님들께
거꾸로선생님

함께 있어 행복한 우리
나승빈 선생님의 학급 참여 이야기

자녀들의
행복교실
만들기

참샘스쿨
크립교실
교사가 최고의 콘텐츠다



한국협동학습연구회

차승민 선생님의
영화로 통하는 교실

2. 수업 브랜딩 왜 만들어야 할까?

수업브랜드가 있으면 멋진 교사? 없다면 그렇지 않은 교사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수업브랜드가 없는 명품교사들을 수없이 많이 보았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신만의 수업을 이끌어가신 분들이 현장에는 대부분이다.

다만 수업브랜딩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꽤 매력적인 이점이 있다. 그래서 교직에 발을 내딛은지 얼마 안 된 교사라면 나만의 수업브랜딩을 만들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그 이점으로 첫째는 수업브랜드를 통해 나의 수업에 관한 철학을 정립할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배움의 의미, 내 수업을 통해 갖게 될 아이들의 역량, 내가 생각하는 인재 상, 내 교과의 존재이유를 브랜딩하는 과정에서 정립할 수 있다.

둘째, 수업브랜드를 통해 나를 다른 교사와 차별화할 수 있다. 이는 달리 말해 학생들이 만날 무수히 많은 교사 중 내가 그들 뇌리에 기억나는 선생님이 자리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가 되고 나는 그동안 나를 가르치신 그 많은 선생님들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었는데, 교사인 내가 봐도 괜찮았던 교사는 둘 중 하나였다. 삶과 인격으로 날 감화시켜주시는 분이거나 수업으로 날 성장시켜주시는 분이다. 전자는 교육철학으로 후자는 수업연구를 통해 가능한 것인데, 이 둘을 고민하고 결합하면 수업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

셋째, 내가 하는 수업을 누군가에게 설명하기가 용이하다. 물론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드러내고 싶어 수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린 수업동아리에서, 전문적학습공동체에서 누군가에게 수업을 공개하고 내 수업을 설명해야 할 일이 의도치 않게 너무 많다. 수업짝에게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동아리에서 내 수업을 나눌 때 수업브랜딩은 나의 수업 철학과 수업의도를 쉽게 드러낼 수 있다.

넷째, 수업브랜드는 교사 개인을 드러낸다. 본디 성장과 배움에 목마른 교사들의 특성상 브랜딩을 하는 과정 자체를 교사는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일관되고 지속적인 수업브랜딩을 통해 다른 교사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꽤 멋진 일일 것이다. 이렇게 멋진 수업디자인을 제가 했어요! 하고 말이다. ^^; 교사이기 이전에 모든 인간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를 갖고 있다.

3. 수업 브랜딩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일회적인 수업브랜드는 모두에게 공감을 사기 어렵다. 지금은 진정한 통하는 시대이다. 모든 교사들은 뛰어난 지성을 소유하고 있다. 누구든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제 진짜(수업)인지 가짜(수업)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일회적인 쇼는 감탄은 줄지만, 감동을 주지는 않는다. '뭐, 잘했네' 할 수 있지만 '나도 잘해야겠다' 하는 울림을 주기는 어렵다.

한 때 유행처럼 각 학교에서 교사 1인 1브랜드 만들기를 하던 때가 있었다.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억지로 만든 그 브랜드는 대부분 1년이 지나면 사장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학생들조차 그 수업의 브랜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기도 했다. 동료교사들 역시 수업에 대한 공감을 사지 못했다. 그 브랜드가 교사만의 특별함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업브랜드가 진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 교사의 수업철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 어떻게 철학을 담을 것인가? 바로 다음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바로 아래의 세 가지 키워드를 고민하는 것이다.

첫째, 내 교과를 왜 배워야 할까?

둘째, 내가 생각하는 배움이란 무엇인가?

셋째, 내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랐으면 하는가?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중요한 이유는 이게 바로 수업 철학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세가지 키워드를 통해 수업브랜드를 만들 수 있다.

3가지 키워드		저는 이렇게 풀었어요!
❶ 내 교과는 왜 배워야 할까?	⇒	도덕적 문제의식-도덕적사고-도덕적정서-도덕적실천 “도덕적정서는 스며들되, 도덕적 사고는 날카롭게! 도덕적 행동은 ACTON DO!덕” 하기 위해! 즉, 스스로 도덕하기 위해!
❷ 내가 생각하는 배움이란?	⇒	학생이 주도적으로 생각을 만들어가는 수업!
❸ 어떤 사람으로 자랐으면 하는가?	⇒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

이 세가지 키워드를 통해 나는 이렇게 수업브랜드를 만들었다. **군자중(배움의 주체가 될 아이들)+만들어가는(배움의 과정)+ACTION DO! 덕(德)(배움의 결과)**, 바로 군만두가 그것이다.

많은 선생님들께 위의 세 가지 키워드를 묻는다. 그렇지만 3가지 키워드를 즉각적으로 이야기하는 교사가 많지는 않다. 충분히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고, 충분히 생각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하여 우리는 그 많은 나날들을 수업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흘러보낸다.



지난 달 역량중심수업연구회 후배님들께 드릴 선물로 만들어본 교사 브랜드 로고다. 선생님들이 수업브랜드 만드시는 걸 어려워해서 한 번 만들어본거였다. 저것을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스스로 만든 분들도 계시다. 나는 수업브랜드를 만들 때 **교사변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교사’를 거친 수업은 다른 교사의 수업과 어떤 지점에서 분명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무수히 많은 도덕수업이 있지만, 나를 거친 수업은 분명 여타 선생님들의 수업과는 다를 것이다. 그 교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배움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수업브랜드에는 그 교사가 가장 중시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녹여 있어야 한다.

우리 학교의 신수영(한문)선생님은 [수영샘과 한문속으로 풍덩]이란 브랜드를 쓰고 계신다. 수영샘의 수영이란 이름을 접목해 자칫 고루한 한문을 귀여운 수영동작의 순으로 디자인하신다. 쪽쪽쪽 준비운동-첨병첨병 물장구-어푸어푸 자유형-나비날다접영-유유날다배영의 순이 그것인데, 이는 분명 다른 여타 한문수업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김소라(미술)선생님은 랑랑랑 이란 브랜드를 쓰신다. 나랑, 너랑, 우리랑의 약어이다. 소라샘의 랑랑랑이란 브랜드는 미술교과이기 때문에 더 가능하다. 소라샘은 1학기에서 나랑에 해당하는 나를 들여다보는 수업을, 너랑에 해당하는 상대를 관찰하는 수업을, 2학기에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수업을 진행하신다. 특히 프로젝트형으로 진행되는 미술교과의 특성과 맞물려 나-너-우리로 확장되는 관계 속 미술이라는 소라샘의 수업관이 담겨있다. 이게 바로 수업브랜드이고, 브랜드를 수업디자인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나는 붉은장미라는 아바타같은 매가 있는데, 그것이 곧 나의 별명이기도 하다. 붉은장미는 나의 매력(?)을 잘 살린 도구이다. 나의 눈빛과 표정, 이미지 등이 조합된 산물이다. 카리스마를 나타내기도 하고, 특이하고 독특한 개성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래서 학습지 상단에는 군만두(수업브랜드), 하단에는 붉은장미(교사브랜드)가 있고, 3월 오리엔테이션시간에도 붉은장미를 소개하는데 정성들여 시간을 할애한다.

학생들 머릿속엔 도덕수업하면, 붉은장미와 군만두를 자연스레 떠올리게 된다. 수업을 디자인할 때도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잘 하는 것을 좋다고 끌어와봤자 나라는 사람의 필터를 거쳤을 때 그게 약화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겐 별로였던 것이 나라는 사람이 하니까 더 좋은 아이템이기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의 매력을 빨리 캐처해야 브랜드를 찾아갈 수 있다**.

자, 생각해보자. 나의 매력은 무엇일까? ^^



4. 수업 브랜딩 어떻게 수업으로 '디자인'할까?

수업브랜딩의 시작과 끝은 “아이디어”

아이디어는 모든 교사의 고민의 시작이다. 나는 아직도 수업아이디어가 고갈되었을 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 그리하여 서태지가 은퇴하며 한 그 유명한 말 ‘내겐 창작의 고통이 뼈를 깎는 아픔이었다를 감히 고백컨대, 진심으로 깊이 공감한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겸비한 사례를 만나면 우리는 감탄한다. 대체 어떻게 저런 창의적인 생각을 해냈을까 싶지만, 사실 비결은 간단하다. 오랜 관찰과 고민의 결과로 탄생한 것이다. 아이디어는 그 아이디어를 반드시 실현하고자 하는 끈질김이 수반되어야 한다.

아이디어가 전 왜 안 떠오를까요 묻는 후배에게 난 이런 조언을 하고 싶다. TV를 볼 때마다 뉴스, 예능, 드라마, 광고, 영화 그 어떤 것이든 좋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생각하는 거다. “저거 어떻게 내 수업에 써먹지?” 그러나 우리는 즐겁고 요긴한 콘텐츠를 접해도 그냥 흘려버리고 만다. 내 수업과 아무런 연관성을 찾지 못한 채 말이다. 수동적으로 TV 속 콘텐츠를 즐길 뿐,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그 콘텐츠를 재활용하지는 못하고 마는 것이다. 요즘은 SNS도 꽤 쓸만하다. 재치있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온라인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수업연구회 선생님들과 매 달 수업나눔을 하고 있다. 두 가지 과제를 내 주었는데, 하나는 매 주 운동도서를 읽고 난 에세이를 쓰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한 달 동안 어떤 매체에서든 다 좋으니 다양한 콘텐츠 중 재밌었거나, 유익했거나, 감동한 기사를 스크랩해오라고 했다. 기사를 스크랩해오는 의도는 간단했다. 삶과 연계된 수업의 아이디어를 찾는 연습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내 의도를 선생님들이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단번에 내 의도를 알고 멋지게 활용하는 천재후배교사들이 우리 연구회에는 많다.

아이디어는 수업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업무를 진행할 때도 뭔가 창의적이면서도 감각있게 해내는 사람은 평소 어떤 아이디어든 흘러보내지 않고 주의깊게 관찰하고, 그 유의미한 관찰을 내 업무와 연결짓는다. 좋은 콘텐츠를 만나면 생각해야 한다. “저걸 내 수업에 어떻게 써먹지?”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탠다. “저걸 내 업무에 어떻게 써먹지?”

이 단순한 생각을 모든 교사가 다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생각의 습관”이 처음엔 별 차이가 안 날지 몰라도 시간이 켜켜이 쌓이다면 성장 가속도가 붙어 10년 차 정도 되면 스스로가 엄청 성장하게 된다. 비법은 간단하다. 남들보다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다.
“저걸 내 수업에 어떻게 써먹지?” “저걸 내 업무에 어떻게 써먹지?”

브랜드에 트렌드를 더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2018년 6월 15일 기준으로 교육부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어제자로 재선에 성공한 경기도교육청의 이재정교육감의 주요공약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요즘 화제가 되는 기사, 유행하는 예능, 정치와 시사 이슈는 쉽게 안다해도 많은 교사들이 내가 속한 학교의 직속 상위기관인 교육청, 나아가 교육부의 정책방향성에 무관심하다. 학교라는 관료제 하에서는 상위 기관이 빅픽처를 그리며 시행하는 정책들에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정책의 흐름을 알면 미래사회를 쉽게 대비할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수업 아이템도 적용하여 수업에 트렌디함을 더할 수 있다.

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모르면 자꾸 현장에서 엉뚱한 소리 하게 된다.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니 무턱대고 비판을 하거나, 현장에서 적용을 하지 못한다. 이것이 왜 들어왔는가를 이해해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책과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바뀌면 곧 없어질 업무로 차치해버린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먼저 준비하기는커녕 현재 이루어져 실행하고 있어야 할 아이템도 쫓아가질 못한다.

아이디어를 수업디자인에 접목하기

수업브랜드를 정해놓고, 아 이제 나는 프로교사야. 이제 멋진 수업을 할 수 있겠지? 하면 오산이다. 수업브랜드당이 끝났다고 수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 브랜드에 해당하는 것이 아이디어와의 싸움이다. 나는 아직도 일요일 밤마다 떨린다. 아, 이번 주 수업. π

수업브랜딩에 진정성이 빠지면 울림없는 팽과리와 같다. 수업브랜딩을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그에 걸맞는 수업준비를 해야 한다. 이 때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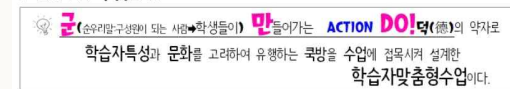
아이디어는 많이많이 생각하면 된다.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TV를 보다가도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도 아, 저거 좋겠다 싶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하는 사람만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날 수 있다. 나는 학교와 집의 거리가 멀어 왕복 두 시간을 운전하는데 운전하면서 가장 많은 생각이 피어나는 경험을 한다. 심심할 시간과 과정의 여유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꽃핀다. 여유로운 시간에 계속 생각하면 결국 아이디어는 생긴다.

‘내 교과’라서 아이디어를 낼 수 없다고 하는 교사는(나는 ~교과라서 안돼), 스스로 자신이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뿐이다. 어느 특정교과만이 아이디어를 점유하는 것은 아니다. 군만두수업이 도덕교과이니까 가능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그렇지만 군만두수업을 보기 전에 누구도 군만두수업을 도덕수업에서 본 적이 없다. 누구도 군만두 수업을 먼저 생각하지 못했다. 내 교과에 매몰되어 스스로 나는 안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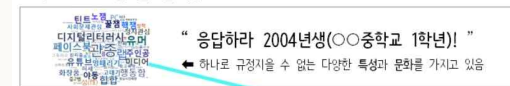
얼마 전 어서옵쇼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영표가 어차피 해도 안 된다고 말하는 청춘들에게 멘토링을 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말했다. 더디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멈춰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노력이 많은 고통을 수반하는 것은 사실이나 노력해서 꿈꾸는 것을 이룰 때 들어가는 고통이 꿈을 이루지 못한 고통보다 더 이겨내기 쉽다. 수업 준비를 하는 노력의 고통이 수업 시간 아이들의 싸늘한 눈빛보다 견디기 쉽지 않은가? 수업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있을 때의 엉망진창인 교실과 아이들의 싸한 반응은 교사로서 너무 힘든 순간이다. 멋진 수업을 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면, 매일 꾸준히 '생각'해서 그것을 '실천'해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업브랜딩을 하는 근사한 교사가 되고 싶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업 준비가 필요하다.

5. 수업 브랜드의 사례, 군만두!

1. 군만두란 무엇인가?





2. 누가 군만두를 실천할 것인가?




3. 군만두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군만두수업 순서	의미	학생특성 + 문화반영
사이다	사건으로 이해하는 다양한 해석	정치사회이슈관심 배후추출하는
미더덕	미디어로 더 도덕하기	디지털문화비판 디지털문화옹호
레알액션드라마동작식	실제로 모험활동을 하는 것	관중 재미무구화
튀김	튀기오르는 생각-도덕 되새김	배출을중시하는논리
흔내폴	흔한흔 냄새를 풍기며 도덕실천	덕질 자기표현문화
성찰일기	수업에 대한 반성과 성찰	자발적행동 YOLO문화


Making 교육과정 <


Acting 군만두 <


Studying 자취하기

내 수업브랜드, 군만두를 소개하겠다. 학생들의 특성과 문화를 수업에 반영하고 거기에 교사변인이 결합된 것이 군만두 수업이다.

군만두수업은 독특한 다섯 가지 요리로 이루어져있다. 사이다, 미더덕, 레알액션모듬정식, 튀김, 훈내폴폴¹⁾, 성찰일기를 쓰는 것으로 한 주제를 수업한다.

아이들을 오래 지켜봐왔더니 아이들에게 공통적인 문화적 특성이 있었다. 그 특성을 각각의 수업구조에 넣은 것이다. 관중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위해 레알엑션모둠정식을 만들었다. SNS와 각종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알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사이다를 만들었다.

이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이슈들을 아이들에게 소개하고(사이다), 도덕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통해 문제의식을 느껴보고(미더덕), 관련 주제에 맞는 도덕적 문제를 모둠원과 협동하며 활동해보고(레알액션모둠정식), 점핑과제나 좀 더 확장된 문제를 한 번 다뤄보고(튀김), 그 주제를 한 번 실천해보도록 유도하는 것(흔내폴폴)이 군만두 속 수업 구조이다.



2016년에 군자중학교로 학교를 옮겼을 때, 공자가 추구하는 최고의 인간상인 군자라는 학교네이밍이 참 맘에 들었다. 이젠학교에서는 도덕learning-man이란 수업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었고, 마침 런닝맨을 더 이상 중학생들이 열광하지 않게 되어 브랜드이밍의 변화가 필요하던 시점이었다. 군자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서도 당시 쿠팡이 선풍적 인기를 끌던 때여서 유행하는 아이템을 적용하고 싶었다. 냉장고를 부탁해, 수요일식혜, 오늘뭐먹지? 삼시세끼 같은 요리프로그램들이 줄줄이 선방하던 시절이어서 어느 날 문득 TV를 보다 아 요리를 수업에 끌어오야! 싶어 군자인들이 만들어가는 ACTION DO! 덕(德)을 만들게 되었다.

● 군만두 수업 모형 한 눈에 보기

[illegible]

요약하자면, 군만두는 학생들의 문화와 특성을 관찰하고 그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것을 캐치한 후 교사가 잘 하는 것을 결합하여 브랜드네이밍에 쿡이란 유해하던 트렌드를 반영하고 사이다-미더덕-레알액션모듬 정식-튀김-훈내폴폴-성찰일기라는 수업디자인을 구조화한 것이다.

6. 결국은 가질한 사람만이 갖게 되는 수업브랜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은 많다. 멋진 연수도 많다. 매번 추천하는 협동학습연구회에서 주관하는 '협동학습 기초과정'은 정말 모두가 의무적으로 받았으면 좋겠다. 멋진 책도 많다. 멋진 연구회도 많고, 요즘은 공모연수가 시작되어 친분이 없어도 연수에 신청하여 자연스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많다. 마음만 먹으면 열려 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을 안 열 뿐.

7. 수업 브랜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까?

미래교육을 설명하는 키워드가 많다. 학점제, 무학년제, 메이커교육, 학생중심교육과정, 학습공동체, 학습자 맞춤형, 학생 선택, 진로연계 그 외 수도룩하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교육이란 주제도 반복해서 듣다보니 마모된 개념이 되어버렸다. 요 사이 너무 듣다보니 솔직히 식상하고 재미없어져버렸다.

다만 미래교육이 주는 확실한 교훈과 방향성은 잊지 말아야 한다. 진로와 교과를 연계하는 교사가 멋진 교사가 될 것이고, 학생들의 선택이 강조될테니 앞으로 학생 선택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이 점차 어려울 것이다. 매력 없는 수업디자인은 학생들의 배움을 더 도주하게 할 것이다. 미래사회에서 단순암기는 아무짝에 쓸모없다. 그것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많은 사람과 함께 써먹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미래를 위한 준비가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멋지게 살아가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 미래에 멋진 사람은 현재에도 멋진 사람일 확률이 높다. 미래는 오늘이 쌓이고 쌓여 오게 될 미래의 오늘일 뿐이다.

오늘을 차근차근 충실하게, 멋지게 살아간다면 다가올 미래는 그다지 두렵지 않다. 모두가 수업브랜드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더 나은 교사, 더 수업을 잘 하는 교사, 미래를 위해 더 준비하는 교사가 되고 싶다면! 수업브랜드는 꽤 매력적인 아이템이다.

글 | 이정은 (혁신교육부)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람람람” 미술수업을 소개합니다

5년차 교사의_수업이야기

나는 5년차 교사다. 수업연구가 재밌어지기 시작한 때는 작년부터다. 1~3년차에는 수업사례나눔 연수에 따라다니며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을 보고 따라하기 급급했고, 작년에서야 '나만의 수업'이란 것에 본격적으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마침 작년부터 우리학교는 '교과역량 함양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연구학교'를 시행하면서 교사 각자에게 교과에서 학생들이 핵심역량과 교과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주었다. 거기다 나랑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계시는 부장님께서 수업연구대회 준비를 하시며 더 좋은 수업을 위해 어떤 노력과 고민을 하는지를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에 수업에 관심이 가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에 내가 있었다.

#내가_생각하는_배움 작년에 가장 의미있었던 일이라면 내 마음을 울리는 배움에 대한 정의를 찾은 것이다. 이경원 선생님의 『교육콘서트』란 책을 보면 배움이란 마음을 먼저 채우고 그것이 넘쳐 머리를 채우는 것이라는 정의가 나온다. 지금껏 들어온 말 중에 가장 마음에 와 닿았고 그래서 작년부터 엄청 많이 말하고 다니기도 했다. 각자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은 마음을 학생들에게 먼저 채워주고 스스로 실천하는 방법을 같이 찾아 가는 수업을 디자인 하는 것이 내 수업의 지향점이다.

랑랑랑

#수업브랜드의 필요성 #수업태그(군자중 역량중심 수업연구 교사동아리)회장님인 이정은 선생님은 후배교사들에게 수업을 조금 더 세련되게 조직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추천하신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역사샘은 역사의 History와 자신의 이름 '희'를 결합해서 '희;스토리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 수학샘은 수학교과와 게임을 융합한 MSG(Math S Game)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냈다.

#랑랑랑? 조금 유치하기도 한 이것이 현재 나의 수업브랜드다. 나와 맞닿아 있는 것들을 통해 내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보자는 나의 수업철학을 담았다. 어떻게? 나의 주변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나**를 먼저 알고, 나 만큼 소중한 **너**를 이해해 보고, 그리고 나와 너가 힘을 합쳐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나라를, 세계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 누가? 나랑 너랑 우리랑!!! 랑랑랑

지금부터 2018년 1학기에 진행되었고, 또 진행되고 있는 랑랑랑 미술수업을 소개하려고 한다.

[나랑] 나를 소개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의 학생 때를 되돌아 보니 난 별다른 생각이 없는 학생이었다. 개성? 그런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가 다닌 고등학교는 규율이 엄격한 사립고등학교였는데 하얀 운동화에 메이커는 5cm를 넘어서는 안되며, 양말은 두 번 접어 신고, 머리길이는 귀 밑 3cm. 앞머리는 없어야 하고 있으면 복장검사 때 선도부가 자로 재어갔다. 다음달 검사때 잘 기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교복이며 머리스타일이며 친구들의 불평이 많았지만 난 오히려

“그래, 고등학교 댄 공부만 해야지. 저런 건 대학교 가서도 할 수 있어. 저 대학에 가면 그 때 하면 돼.”라고 생각하며 외모에 신경쓰지 않을 수 있어 자유함을 느꼈던 아이였다. 내 생각인지 어른들의 생각인지도 구분이 안되는 틀에 나를 맞추고 다음만을 바라보면서 3년을 보냈다.

그런데 막상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건 아무 생각 없이 나에게 주어진 틀에 나를 맡기고 나에 대해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그 시간들 때문이었다. 나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가 너무 버겁고 어렵기만 했다.

내가 학생시절이었을 때와 달리 현재의 학생들은 자기 표현이 분명하다. 자기가 좋아하는 옷과 화장(?)의 스타일도 분명하고 자신의 의견도 분명히 말할 줄 알게 자신이 납득되지 않는 일에는 어른의 말씀이라고 해서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그런데...이상하다? 개성이 넘치는 거 같으면서도...너네 묘하게 비슷하다?! 작년 겨울에 유행했던 검은색 롱패딩, 극화장, 그리고 소지품이 보이는 망사 가방까지.

유행도 너무 빨리 변하고, 선택의 폭이 너무 넓은 시대이다 보니 오히려 우리는 남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남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다.

나 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잘 알아야 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고, 진짜 나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학창시절에 대한 아쉬움과 대학생이 되었어도 나 다운 삶이라고 확신이 들기전까지의 그 시간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기를 알기에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는 나에 대해 미리 생각해보고 표현해보는 시간을 주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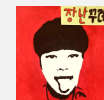
선택권이 엄청나게 넓어진 거 같지만 오히려 단일화, 획일화 되는 시대에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나의 개성을 표현하는 미술수업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출처: 조선일보 2017.12.08 '따라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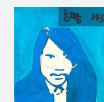
(http://life.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07/2017120701747.html)



차시	주제	활동내용
1	생각열기	[생각열기] '따라민국' 기사 읽고 토론탐기 [아이디어탐색] 마인드 맵 + 나의 이야기 글로 써보기
2	사진찍기	[활동1] 사진찍고 필터효과주기 나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사진찍기 Sketchguru 앱 사용해서 B&W 버전으로 만들기
3~6	작품제작	[활동2] 작품제작 - 아이디어스케치 - 출력한 사진 먹지로 도화지에(13*13)에 옮기기 - 포스터 물감으로 색칠 시작 - 5글자로 자신을 나타내기
7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 - 자기평가+자기 작품설명 - 친구발표 듣고 잘된 점 칭찬해주기 - 이 시간을 통해 알게 된 점 쓰기



나는 '장난꾸러기'다. 그래서 장난을 많이 칠 것 같은 얼굴로 혀를 내민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색을 하얀색과 빨간색으로 한 이유는 처음 보면 하얀색처럼 순하게 생기고 좀 착하게 생겼지만 친해지면 악마처럼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칠했다. (2학년 ○○○)



배경은 하늘색, 인물 부분은 파란색으로 하였다. 이유는 약간 우울한 느낌을 주고 빨주노초파남보의 중간에 있기 때문이다. 항상 시선은 몇몇을 제외하고는 맨 앞, 끝애만 시선이 끌리기 때문이다. (2학년 ○○○○)

◀ [나랑] 나를 소개합니다 수업진행과정

▲ [나랑] 나를 소개합니다 수업결과물

[너랑]

우리 학교에 사는 식물 친구들

▼ [너랑] 체험수집노트 활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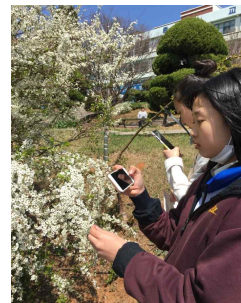
▼▼ [너랑] 식물친구들 관찰 모습

두 번째 수업은 나 만큼 소중한 아름다운 너를 살펴보는 시간이다. 대상은 우리 학교에 사는 식물들이다. 등하교 길에 스쳐지나가며 보았던 식물들을 시간을 내어 자세히 관찰하며 자연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싶었고, 이렇게 미적감수성을 키워주는 연습은 개인의 삶을 좀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첫 시간에는 군사산책로에 나가서 체험수집노트를 작성하였다. 보이는 색, 들리는 소리, 냄새, 촉감 등을 기록하고 들리는 소리를 우리가 배운 조형요소로 나타내 보기도 하였다. 들리는 소리를 기록하기 위해 1분 동안 아무소리 내지 않기도 했는데 평소 말쑥꾸러기 친구들도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귀여웠다.

그 다음으로는 주변을 거닐며 가장 마음에 드는 식물을 정하고, 꽃 감색 어플을 통해 정보를 찾아 기록하고, 관찰하고, 별명도 짓고, 대화까지 시도했다.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을 낯설게 봄으로써 얻은 새로운 느낌이나 생각은 직접 그린 식물그림과 함께 작품에 기록하도록 지도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의 작품을 친구들과 함께 감상하며 우리 학교에 어떤 식물들이 있고, 그 식물을 보며 내 친구는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랑]

우리 마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인간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관적인 공헌감이 있을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생각해보니 그렇다. 내가 누군가에게 더 받으려고 생각할 때 보다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이 될 때 기분이 좋다. 공동체업무를 할 때도 내가 조직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더 의욕이 넘치고 나의 존재감을 스스로 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나는 내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해지길 원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스스로 자기 효능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1학기의 [우리랑]은 교내 미술동아리 첫 번째 프로젝트를 통해 진행되었다. '우리 마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 POP아트 초상화를 그려드리는 프로젝트로 동아리 친구들이 직접 대상을 선정하고 찾아가서 짧은 인터뷰와 함께 사진을 찍어왔다. 찍어온 사진들을 보니 거북복지관에서 일하시는 분, 우리 학교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 아픈 사람을 친절히 치료해주시는 의사선생님, 경찰아저씨, 우리 마을을 위해 적십자사에서 봉사하시는 아주머니 등 다양했다. 가기 전에는 긴장이 많이 됐는데 막상 가보니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다는 학생들의 말을 들을 땐 내가 더 뿌듯했다. 작품이 완성되면 2학기 축제 전시도 하고 직접 초대장도 보내드릴 예정이다.

1. [너랑] 우리학교에 사는 식물 친구들_ 완성작품 감상
2. [너랑] 우리학교에 사는 식물 친구들_ 자기작품 발표
3. [우리랑] 우리 마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_POP아트 초상화 진행 사진
4. [우리랑] 우리 마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_ 모델섭외지
5. [우리랑] 우리 마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_ 사전활동지

4
5

안녕하세요!
군자중학교 미술 교사입니다.
본교 미술동아리 '영동동아리'가 거북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의 초상화, 포스터를 함께 만들려고 합니다. 작품들을 두 일주일 정도를 선정하여 고르기 하고 제작해 줄하는 '교내 미술전시회'를 통하여 발표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아쉽고 불편하시더라도 본교 학생들의 활동 시간 쪼개기 부탁드리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포스터를 통해 주신 분께는 주부, 한시와 초대장을 보내 드리며 포스터와 일부를 그린 초상화 작품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포스터와 일부분 사진은 수업 시간자료용으로 한 번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5. 29

군자중학교 미술교사 김소라 드림
(연락처 : 070-7097-2948)

우리 마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 (취재사항)		작성자	학년	반	이름
대상		선정 이유			
1. 대상인명		선정 이유			
2. 촬영일자		촬영 일자			
3. 사진촬영		촬영 방법			
4. 사진촬영		촬영 방법			
5. 촬영일자		촬영 일자			
6. 촬영일자		촬영 일자			
7. 촬영일자		촬영 일자			
8. 촬영일자		촬영 일자			
9. 촬영일자		촬영 일자			
10. 촬영일자		촬영 일자			

#나도 배운다 한 주제가 끝날 때마다 학생들에게 자기평가서와 동료평가서를 작성하게 한다. 그림으로 못다한 자기작품에 대한 의도 설명을 글로 써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도 해보고, 이 시간들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다. 나는 이 시간을 통해 내 수업에 대해 가장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운다.

첫 번째 수업이었던 [나랑] 나를 소개합니다'에서 나의 수업의도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그리고 그 개성을 색으로 의미를 담아 표현해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기평가서를 읽어보면 새롭게 알게되었던 점은 '자신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의견 만큼이나 먹지라는 중이가 신기했고, 포스터칼라의 사용법에 대해 알게 되어 좋았다는 답변이 많았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니 그렇다. 나에게서는 포스터칼라라고 먹지고 그냥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료 중에 하나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처음 써보는 재료로 신기했겠다. 내가 새로운 재료와 아이템에 흥미를 느끼는 것처럼 이 친구들도 그랬겠구나.

한동안 나는 학생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주제에 꽂혀있어서 이 점을 놓치고 있었다. 학생들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주제찾기도 중요하지만 친구들이 흥미있어할 재료를 연구해보는 것도 그만큼 매우 필요하고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순간이었다.

내 수업은 나를 닮았다

내 수업은 나를 닮았다. 나의 감수성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이 닮았다. 나의 어설픈품이 닮았고 번득이는 재치는 없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점이 닮았다. 나와 닮은 내 수업은 5살배기의 느린 걸음처럼 천천히 성장 중이다. 여유있는 마음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좋은 것을 흡수하고 더 좋은 생각을 해야지. 쓸쓸하다. 키워가는 즐거움이다.)

글 | 김소라 (혁신교육부)



우리 동네 테마지도 제작하기 거모동 어디까지 가봤니?



거모동 맛집이 어디에요?

학창시절 나에게 미술 시간은 '나는 좋아하지만 친구들을 싫어하는 수업'이었다. 어렸을 적부터 미술을 좋아하고 입시 미술학원까지 다녔던 나에게 미술시간은 즐겁고 나의 작품이 주목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미술에 관심도 흥미도 없는 나의 친구들에게 미술시간은 어렵고 따분한 수업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일반계 중, 고등학교의 학급에 미술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은 2~3명 또는 그 이하일 것이다. 따라서 나는 그림에 관심도, 흥미도 없는 소위 "저는 그림 못 그려요."라는 말을 하는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그들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수업을 하고 싶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미뿐만 아니라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까지 전달 될 수 있다면 그게 최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던 중 나의 절친 김애라 선생님과 대화를 나눴다. "애라쌤, 거모동 맛집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아니요."

어느 덧 한 학기가 넘도록 학교를 오가며 거모동의

이곳, 저곳을 걸어 다녔지만 이 곳에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체국의 위치는 어디인지, 병원은 어디에 있는지 또 맛집이나 카페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이 동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저희 반 학생에게 물어볼까요?"라는 질문을 하던 중, 갑자기 이 수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선생님보다 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주제로 수업을 한다면, 또 그것이 내가 태어나고 살아온 우리 동네 마을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동기유발 자료가 되지 않을까? 나는 생각했고, 이 프로젝트를 통합수업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여러 교과와 함께하는 주제통합수업

단순히 흥미 위주의 지도 제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는 작품과 생각을 끌어내기 위하여 교과들이 연계하여 같은 주제의 다른 활동들을 하는 것이다. 역사 시간에 알게 된 거모동의 역사나, 인터뷰 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술 시간에는 관심 있는 지역이나 주제의 테마 지도를 제작하고, 영어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학생들의 활동모습



간에는 내가 지도에 제작한 장소들 중 하나의 장소를 소개하기 위한 영어 전단지를 만드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여러 교과가 연계되어 내가 배운 지식이 실제로 생활에 사용될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역량'을 기르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미술교과의 테마지도 프로젝트는 4인 모둠활동으로 이루어졌고, 수업 전개는 4차시로 구성하였다.

1차시에서는 학기 초 군자중학교에 처음 오게 된 나의 이야기를 전했다. 거모동이 궁금했던 나는 네이버에 '거모동'을 검색했다는 이야기를 하며, 아이들과 함께 인터넷에 '거모동'을 검색해보았다. 인터넷에 나오는 거모동 검색 결과에는 주요 명소에 군자봉, 플레이방방 등 전혀 주요 명소로 볼 수 없는 여러 장소들이 나왔다. '이 자료들.. 신뢰도 높은 자료 인 것 같니?' 라고 묻자 학생들은 웃음이 터졌고, 자기가 알고 있는 주요 명소들을 나에게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학생들과 자유롭게 거모동의 이야기를 나누며 동기 유발을 한 뒤에, '테마지도'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단순히 위치를 알려주는 일반 지도가 아니라, 소개하고자 하는 컨셉과 타겟에 맞게 장소들을 주제별, 코스별로 소개하는 지도였다. 여러 가지 예시 작품을 보고 학생들은 활동지에 컨셉, 타겟, 지도 제목 등을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은 '치킨 집', '공공 기관'에서부터 '아파트', '학원' 그리고 '거모동 사람이 알려주는 절대 가면 안 되는 위험지역'등의 주제를 잡아 다양한 장소들을 주제별로 선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코스로 주제를 선정한 아이들은 '중학생에게 추천하는 데이트 코스', '힐링 코스', '시험 끝나고 놀 코스' 군자중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회식코스 등 참신하고 재미있는 주제들을 선정하였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 역할

2차시에서는 모둠 별로 주제, 컨셉 등을 발표하여 다른 모둠과 함께 나누었고, 소개하고자 하는 장소들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전화번호나 영업 시간 같은 정보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만 알고, 거모동에 살아본 사람만 알려줄 수 있는 꿀팁'을 작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학생들은 '이 편의점은 알바생이 친절하고, 아이들을 닮았다.'하는 정보에서부터 '가성비 갑 음식점' 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작성해 나갔다. 어느 정도 작성 이 마무리 된 후에는 이제 본격적인 지도

제작을 위한 역할분담을 하였다. 미술 과목의 특성 상 잘 그리는 한 명만이 그리는 상황을 막기 위하여, 모든 학생이 하나의 역할을 꼭 맡을 수 있도록 하였고,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는 학생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비교적 쉬운 역할도 선택지에 넣었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네 가지의 역할은 모두 디자이너였다. 첫째는 **땅 디자이너**로 지도를 보고 우리 모두의 지도에 필요한 땅을 그리는 역할을 이다. 이 역할은 단순하면서도 필요한 부분만 그려내는 것이 핵심이었다. 위치 감각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대상을 단순화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소개하였다. 두 번째 디자이너는 **픽토그램 디자이너**이다. 각 장소의 픽토그램, 로고를 작성하는 것인데 내과나 외과 치과등의 장소는 사실 기억에 남는 로고가 없다. 따라서 우리의 개성을 담아 픽토그램을 제작해 보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내과는 위 모양의 픽토그램을 그리기도 하였고, 동물병원은 동물을 그려 픽토그램을 그려 내기도 하였다. 세 번째 디자이너는 **제목 디자이너**이다. 지도의 맨 위 또는 가장자리에 붙을 수 있는 제목을 디자인 하는 역할로, 타이포그래피나 문자 디자인과 함께 내용을 설명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경과의 명도차이를 두어 눈에 띄게 표현할 수 있는 명시성 있는 글씨를 작성하는 것이라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글씨 디**

자이너가 있었다. 이번 시간 조사했던 우리 모두가 전달하는 꿀 팁들을 예쁜 글씨와 그림으로 픽토그램 옆에 작성하는 역할이었다. 이렇게 디자이너를 소개한 후 역할분담을 하고 2차시가 마무리 되었다.

3차시에서는 부지런히 자신이 맡은 역할대로 지도를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하나의 그림에 네 명이 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은 부분을 각자의 종이에 그려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자신의 역할이 끝나면 가장 오래 걸리는 땅 디자이너를 도와 색칠을 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역할 분담을 하여 자신이 해야 할 양이 정해져 있으니 무임승차나 한 명만 하는 일이 거의 보이지 않아 성공적이었다.

4차시에서는 각 모두가 발표를 하고 이에 대해 동료 평가, 자기평가를 하며 수업이 마무리 되었다.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만든 지도는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 군자동 주민센터에 기증하는 건 어떨까? 내년엔 전 학오는 학생들에게 전달해주는 건 어떨까? 학생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았고, 자신의 작품이 어딘가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에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많이 부족했지만 또 많이 배웠던 것 같다. 동기 유발과 주제 설정이 수업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체계적으로 역할 분담을 하는 것이 모둠활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것 같다. 학습자 중심의 수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사의 체계적이고 성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든다.

글 | 김조은(방과후 봉사부)



사람책과 함께하는 거모마을, 히:스토리 거모알리지, 널 알리지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업무를 꼽자면 난 수업이라고 생각한다. 고등학교에서 교단을 시작한 나에게 수업을 잘한다고 함은, 소위 '수능특강'스러운, 교사가 얼마나 지식을 잘 '전달'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2016년에 군자중학교로 발령받아 오게 되었을 때 수업을 어떻게 할까, 중2병에 걸린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하는가에 대해 고민에 빠져 몸살이 났던 일도 있었다. 하지만 다행히 좋은 동료 선생님들을 만났고, 내게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조금씩 내 부족한 부분들을 다듬어 볼 수 있게 되었다. 첫 번째 고민의 답으로 현재까지 내가 내린 결론은 수업에 있어서 분명 주인이 되는 것은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점, 그러나 내 과목의 특성을 살려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기를 수 있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고민의 답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중2병에 걸린 학생들 마음속에도 잘 배운 멋진 어른이 되어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길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는(#수업태고 창간호 이정은 선생님 기사 내용 참고)점이다.

서두가 너무 길었다. 2018학년도 1학기 군자중학교 3학년의 주제통합수업 주제는 '거모빌리지, 널 알리지!'였다. 3년의 시간을 여기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은 1년마다 졸업해서 고등학교로 올라갔지만, 그 동생들

이, 그 사촌들이, 계속 이 학교에 있었다. 졸업생들이 찾아와서 "선생님, 000 아시죠? 개 제 친척동생이어요. 말 잘 안 들으면 저한테 말해주세요~" 이런 말을 참 많이 했다. 내가 아직 가르치지 않는 1학년 학생들도 복도에서 날 보면 "선생님, 저 000 동생이어요."라는 말을 많이 했다. 여기 이들이 살고 있는 거모동은 이들 삶의 뿌리이며, 앞으로도 오랜 시간 살아갈 마을이라는 것이다. 평소 여러 연수들을 들으면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내게 이번 통합수업의 주제는 흥미롭고, 재미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시작된 '거모빌리지, 널 알리지!' 주제통합수업에서 나는 기존의 수업 브랜드인 히:스토리와 연계하여 '사람책과 함께하는 거모마을 히:스토리'라는 수업을 구상하게 되었다. 요즘 경기도교육청 내 마을교육공동체지원단에서 사람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한 트렌드와 함께 수업을 디자인하고자 했다.

'사람은 누구나 한 권의 책이 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모동 마을교육공동체에서 사람책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책의 성장 스토리를 통해 거모동의 역사를 알게 되고, 개인의 역사가 모두의 역사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삶의 지혜와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에서 수업을 기획하였다.

수업 전개는 3차시로 구성하였다.

1차시에서는 *송's story*로 사람책과 관련된 영상을 보고 이번 주제통합수업의 의도와 방향성을 이해하도록 했다. 그 후 모둠별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우리 마을(거모동, 군자동)의 역사를 알아본 뒤, 인터뷰할 대상(사람책)을 선정하고, 물어보고 싶은 질문들을 만들도록 시간을 주었다.

가르치고 있는 4반 중 2반은 60대 이상의 어르신을 사람책으로 선정하도록 하였고, 2반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고 선정할 이유도 말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각자 말을 역할을 정하도록 하였는데, 기자, 작가, 촬영, 발표자로 나누어 역할을 부여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모둠별로 짰는데, 질문들을 취합하니 대상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을에 역사와 미래에 관한 것으로 처음 오셨을 때 거모동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예전과 변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군자중학교는 예전에 어땠나요? 거모동이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동네에서 고쳐야 하거나 발전해야 하는 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등의 질문이었다. 두 번째는 사람책에 관련된 질문으로 거모동에 얼마나 거주하셨나요? 왜 거모동에 오시게 되셨나요? 어떤 일을 하시나요? 가장 보람된 일은 무엇이었나요? 일하면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저희에게 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등이 질문이었다. 마지막은 사람책, 역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6·25전쟁을 겪으셨나요? IMF때는 생활이 어떠셨나요? 등의 질문으로 취합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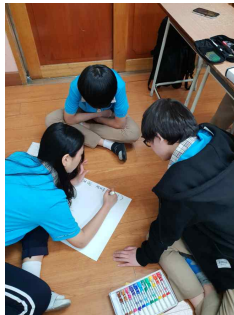


인터뷰는 모둠별로 다음 수업 시간 전까지 하도록 과제를 내주었다. 그 결과 학생들은 87세의 할머니, 13년 동안 거모동에 거주하신 어머니, 갓난아기를 안고 인터뷰에 응해주신 젊은 여성, 노인정에 계셨던 여러 어르신들, 자신들과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비롯해 경찰관, 안경가게 사장님, 미용실 사장님, 어린이집 원장님, 목사님, 전도사님, PC방 직원분, 문구점 사장님, 거모동에 거주하는 우리학교 선생님까지 다양한 분들의 도움을 얻어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2차시에서는 *Your story*로 자신들이 인터뷰한 사람책의 *History*와 조사해온 거모동에 대해서 반 친구들과 나누기 위해 전지에 쓰고 모둠별로 인터뷰 이후 우리 마을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고 느낀점을 학습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차시에서는 *Our story*로 모둠별로 발표자가 나와 거모동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역사와 사람책과 나눈 인터뷰와 성장스토리, 자신들이 이번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 앞으로 우리 마을이 나아가야 할 미래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가 끝난 후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고, 학생들은 마지막으로 동료 평가를 실시하여 가장 발표를 잘 한 모둠을 선정하고, 이유도 적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장 기억에 남는 발표는 87세의 할머니를 인터뷰한 모듬의 내용이었는데, 녹음 파일까지 제출하면서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해주셔서 질문 1개당 10분은 기본이었다고 말하며 상기된 표정으로 발표한 학생들이었다.



인터뷰에 대해 잠시 소개하자면, 할머니께서는 동생들 국수라도 먹이자는 생각에 18살에 결혼하여 거모동으로 오셔서, 결혼한 지 2달 만에 6·25 전쟁이 터져 남편분이 전쟁에 참전하셨던 분이셨다. 다행히 남편분이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셔서 전쟁 당시 상황을 실감나게 학생들에게 말씀해주셨다. 또 옛날에는 거모동에 저수지가 없어서 농사를 짓는데 1년 동안 하늘만 바라보고 비가 오길 기다렸다는 말씀도 해주셨다. 아침에는 밥을 먹고 저녁에는 팔죽, 콩죽을 써 먹어도 식량이 모자라 굶기도 많이 하셨다고 하셨다. 자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주셨는데,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시대에 사셔서 아들만 두 명을 낳았고, 잘 키워서 고맙다는 말씀도 해주셨다.

할머니와의 인터뷰를 듣고 학생들은 거모동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을 알 수 있었고, 6·25 전쟁에 대해서도 자세히 듣게 되어서 신기하고 역사가 더 재밌어졌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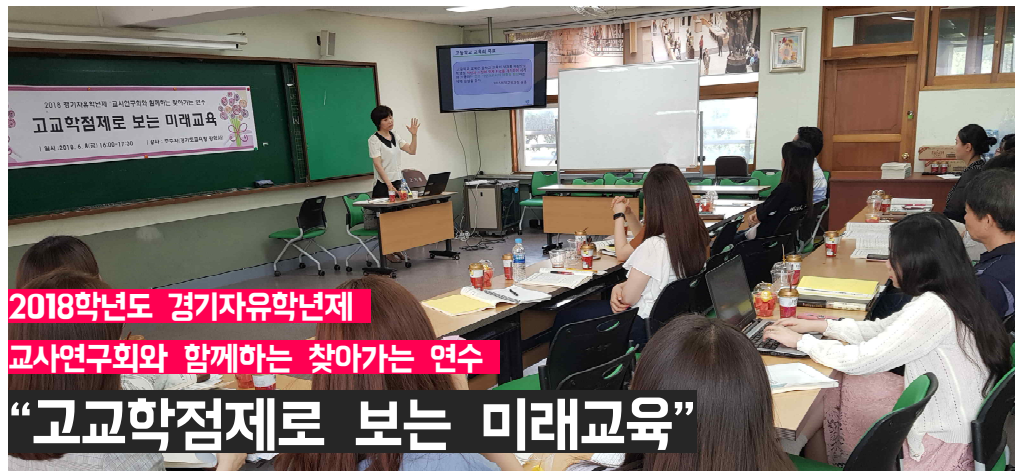
3차시의 수업이 끝나고 난 뒤, 학생들의 학습지를 걷어 확인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인터뷰하기까지 섭외도 힘들고, 사진 찍기도 어려웠다고 토로한 내용이 많았다. 나 또한 이번 수업을 진행하면서 거모동의 역사와 사람책으로 만나는 히스토리를 두 개 다 하려는 욕심이 무리였다고 반성한다. 처음에는 우리 마을을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사람책의 성장스토리를 듣고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부족했고, 결국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과정이 미흡했다. 인터뷰 대상을 정하고 질문을 만들게 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주지 못한 점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면서도 계속 해보려고 시도하고 결국 인터뷰에 성공하여 과제를 스스로 완성해낸 모습에서 고마움을 느꼈다. 또한 자신들의 결과물을 반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어서 발표자들이 모듬의 조사 내용과 생각을 정리해 발표를 잘 해주었고 자유로운 질문도 오갈 수 있었다.

학생들의 역사 수업 활동에 관련된 생기부에는 다음의 내용을 기반으로 각자의 활동에 맞게 쓰여질 예정이다. <사람책과 함께하는 거모마을 히스토리>를 주제로 한 주제통합수업에서 거모동의 역사를 이해하고, 사람책을 만나 사람책의 다양한 성장스토리를 통해 개인의 역사가 모두의 역사와 합하는 점을 찾아보기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모동과 관련된 역사 자료를 찾아보고 분석하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얻은 역사 정보를 분석, 토론, 종합, 평가하는 능력을 보여 줌. 사람책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팀원들과 협력하여 인터뷰 대상 선정, 인터뷰 질문 구성, 인터뷰 계획 및 활동, 모듬별 발표 등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결과를 전지에 정리하여 발표함.

부족하지만 이번 수업을 통해 나는 학생들이 함양했으면 했던 역량이 있었다. 정체성과 상호 존중, 역사 사실 이해,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역량이었는데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삶의 지혜와 이 역량들을 함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처음 시작이었기에 미흡했고, 또 설레었던 이 수업을 내년에는 좀 더 체계화시켜서 수행평가와 연계하여, 한국 현대사를 살아가는 사람책의 이야기로 다뤄보고 싶다.





2018학년도 경기자유학년제 교사연구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연수 “고교학점제로 보는 미래교육”

2022년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기 위해 교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6월 8일 경기도교육청 주주자 장학사님의 '2018학년도 경기자유학년제 교사연구회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연수'에서 고교학점제가 왜 필요한지 미래교육 맥락에서 알아보았다.

고교학점제 도입의 필요성

중학교 교사가 보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시각은 고등학교 교사가 보는 시각과 매우 다릅니다. 미래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미래의 교육은 어때야 할까요? 교육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현재의 교육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중학교에서 초임교사일 때, 진학에 초점을 맞춰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학생들을 지도했고, 공부에 관심이 없으면 생활지도로 통해 공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2015개정 교육과정인 지금은 현재 필요한 것만이 아니라 미래사회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역량을 키워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출산율이 줄어 아이들이 귀해졌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소중한 시대입니다. 노년 인구가 점점 많아져 전제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 능력을 중·고등학생일 때 키워야 하고 고등학교는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편적인 지식이나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창의력, 정서 등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에 FOCUS를 맞추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이러한 능력이 강조되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획일적, 입시중심, 수직적 서열화된 교육으로는 키워줄 수 없습니다. 현재 교육은 대학입시와 수능에 종속되어 국영수 위주

의 암기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며 소수 상위권 학생 위주로 운영됩니다.

고교학점제와 학교교육과정

고교학점제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 선택, 이수,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학생의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에 맞게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학교에는 다양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매우 다르고 유사성이 있는 학생이 모여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권은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과목 개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선도학교에서 해보면 학생들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기억도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이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설계할 수 있는 진로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학습자에게 맞는 교육을 위해 학생 참여형 수업, 학생들이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수업을 해서 학습자의 성장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학생들이 최대한 차별화 수업을 통해 맞춤형 과정중심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선생님들의 수업평가 역량입니다. 학생의 성장을 중심으로,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입보다 9등급 서열화입니다. 다양한 평가요소를 통해 과제물을 만들고 학생의 성취를 평가해야 합니다. 대입제도 또한 학생부 중심의 대입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성장과 학습의 질관리

2015교육과정에 의하면 고등학교교육은 중학교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며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대입맞춤형교육 과정을 여태까지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점제를 통해 바꾸어야 합니다. 학점제는 내 진로를 스스로 성찰하고 선택하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학생에게 부여하여 학생의 역량을 키웁니다. 3월부터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이 나오면 과정중심의 질관리를 통해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교육의 끝선에서 할 수 있는 책임교육을 실행합니다. 학생에게 의미 있는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 강사초빙이나 다른 학교와 함께 수업을 개설하여 꿈의 대학, 꿈의 학교 형태의 학습을 통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장이 수업을 개설을 인정을 받으면 다양한 수업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이 2009개정 교육과정부터 가능했지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수능과목위주, 잘하는 학생 위주로 학교가 교육이었던 때문입니다. 대학에 가지 않는 아이들은 관심 밖이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소중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점제가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기초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학교 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큼니다. 중학교에서 진로교육도 중요하지만 학생이 학점제에서 낙오되지 않을 정도의 기초기본학습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고교학점제를 실시하는 외국의 경우 중학교 졸업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학점제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들보다 필수교과가 상대적으로 적어 교과목의 다양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처럼 졸업자격시험이 있고, 진로교육이 잘 되어 공부할 아이들만 인문계를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학점제를 시행함에 있어 굉장한 문제입니다. 성공적인 학점제의 시행을 위해 교사의 평가로 졸업자격시험을 보완하고 이와 맞는 대입제도가 필요합니다.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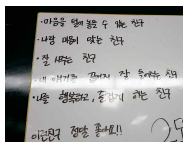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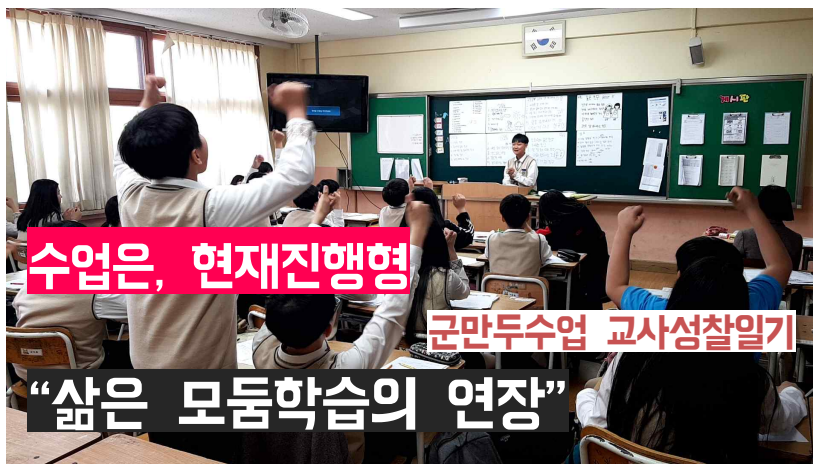
■ 고교학점제가 당장 초등학교 6학년 학생부터 대상이 되는 데 중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 진로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기초기본학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여태껏 하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점제의 진로진학 교육은 아이들의 특성이 무엇이고,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서 실업계 학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잘해서 인문계 학교를 가는 것도 아닙니다. 편견을 없애 직업세계랑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점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 중학교에서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매년 재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기본학력을 갖추고 고등학교로 진학해야 합니다. 자신이 듣는 교과를 스스로 결정해야 하므로 자기주도적으로 결정하는 능력을 기르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안내도 필요합니다.

■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학교에 부여되는 역할이 커지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이전의 기본교육이 너무 중요한데 졸업시험과 같은 제도를 고교학점제 시행함에 있어서 생각해주시는 것은 어떠한가요?

▲ 졸업시험과 같은 경우는 시행 자체가 힘들고 한계가 있습니다. 제도를 바꾸는 것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죠. 학생의 성장을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중도 탈락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의 수업과 평가역량이 중요합니다. 수행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드백을 주고받은 후 평가하는 과정중심평가로 어떤 성장이 일어났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배움중심수업이 평가에서 연결되어 아이들의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글 | 박민영 (정보과학부)



생명력이 있는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관계를 가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연애가 그렇다. 과거 내가 누군가와 사랑을 잘 했던 경험이 오늘의 이성에게 대입이 되질 않는다. 연애했 때와 같은 관계가 결혼 이후에 지속되는 것도 어렵다. 종교도 그렇다. 과거 내가 신앙생활을 잘 했던 경험이 오늘의 신앙을 유지해 주지 못한다. 인격을 가진 ‘신’과 인격을 지닌 ‘나’와의 만남이기에 그렇다. 관계에 있어 가장 찬란한 시간은 그 관계를 맺는 서로가 눈이 맞아 극단으로 치닫는 열정이 피어날 때이다. 이제 다 불장 못불장 보고 만 관계는 회복이 어렵다. 관계에 있어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순간은 서로간의 사랑이 확인되는 순간이겠다. 그러니까 **인격을 지닌 만남에서는 늘 ‘현재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성’이 없는 관계는 건강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왕년에 내가 말야~’ 하는 순간 울림은 현격히 감소하고, 오히려 화자가 **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내가 수업을 잘 했던 경험이 오늘의 수업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내가 수업에 있어 성과를 냈던 경험이 오늘 나의 1,2교시 수업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작년에 내가 수업에 있어 성과를 냈던 경험은 분명 도움을 주겠지만, 그것이 오늘 내 수업을 잘 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내게 있어 가장 위험한 지점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작년에 나는 수업연구대회에서 개인적으로 아주 영광스러운 경험을 했다. 이 경험이 내가 자존감을 키워주고, 수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준 것은 사실이나 그 경험이 오히려 내게 독이 될 수 있다. 내가 경계하는 것은 바로 내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지는 것! 모든 걸 다 알겠다는 관조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 동료들에게 다 알겠다는 듯이 가르치려드는 것! 후배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이다. 그리하여 오늘의 실패의 경험들을 적어보겠다. 나는 전국1등급교사가 아니고, 아직도 성장 중이며 여전히 부족한 교사라는 것이다.

성장평가가 배제된 과정평가는 의미가 없다

문제는 5월 1일 목요일에 발생했다. 중등레퍼소미더우정 수업을 하고 있던 차였다. 나는 음악, 영어, 한문과와 주제통합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내가 하고 있는 도덕수업은 2주(4시간)동안 도덕에서 필요한 관계적이고 본질적인 물음(왜 친구를 존중해야 하는가, 다른 친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학교에서 겪는 폭력의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군만두 수업으로 활동을 진행했고 이에 대한 피날레로 주제에 해당하는 가사를 쓰면서 마무리하는 수업이었다. 아이들에게 랩을 쓰는 의미를 설명하고, 모둠별로 랩을 쓰게 했다.

(※ 본문의 모든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다.)

양케이트수업에서 비교적 옳은 대답을 하곤 했던 갑순이는 여러면에서 X반에서 가장 튀는 아이이다. 갑순이의 오빠를 가르쳐본 경험이 있어 가족관계를 상세히 알고 있었던 것도 갑순이에 대한 편견을 가중시켰을 거다. 평소 수업 중에 잘 돌아다니거나(사물함에 간다고), 잘 옆드러거나, 친구들에게 욕을 하는 몇 가지 문제행동들이 내 맘 속에 쌓여, 내가 ‘예뻐하지 않는 아이’로 분류해버렸던 것 같다.

3모둠은 갑순이, 을숙이, 병돌이, 정팔이로 구성되어 있었다. 을숙이와 정팔이는 아예 말이 없다. 말이 없고 무기력한 아이들의 특징처럼 친구들과의 관계도 미숙하다. 병돌이는 도덕시간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며 발표도 곧잘하곤 했지만, 갑순이 을숙이 정팔이를 함께 끌어모아 모둠활동을 할 만큼의 리더십을 갖춘 아이는 아니었다. 모둠활동이 시작되자 을숙이와 정팔이는 아무 것도 안 하고, 갑순이는 모둠활동이 시작되자 뽀로통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다가, 조금 후에 바로 옆드렸다. 병돌이는 가사를 쓰는 시늉을 하였지만, 이 모둠이 마음에 안 든다는 태도를 온 몸으로 발산하고 있었다.



습관적으로 몇 차례 교실을 돌았다. 각 모둠마다 어느 상황인지, 묻고 피드백하기도 했다. 그러나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3모둠을 보니 한숨이 나왔다. 나는 무기력한 을숙이와 정팔이에게 영혼없는 독려를 했다. 그리고 병돌이가 이 모둠을 구원해주기를, 아니 ‘내 수업’을 구원해주기를 바랐다.



3모둠이 아무것도 안 하고 평소보다 더디가는 시간을 견디며,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을 그 시간에 나는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관찰’하고 있었다. 도덕과에서 평가라는 이름하에, 결과의 평가가 아닌 과정의 평가가 중요하며 그 아이가 하는 활동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아이가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만 했을 뿐 그 아이의 성장을 위해 ‘지원’하지 않았다. 그렇다. 나는 그 아이의 성장에 무관심했다. 내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수업’이었을 뿐, ‘아이의 성장’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수업’을 방해하는 갑순이가 싫었다.

그러던 중 병돌이가 물었다.
“선생님 이 활동 꼭 해야 해요?”

점심시간에 X반 담임선생님과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갑순이가 지난 도덕 시간이 끝나고 울고 있었으며, (담임선생님 차원에서 수업하루일기를 쓰는데 그날 내가 학습태도를 ‘하’라고 주었기 때문이다.)갑순이가 엄청 억울해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지가 수업에 참여안하던 것은 생각안하고 뭘 억울해’가 즉각적인 내 생각이었다.

같은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X반 담임선생님은 일관되지 않은 행동이라며 갑순이를 타박하는(관심을 주면 왜 저한테만 그래요? 관심을 안 주면 자기한테만 관심을 안 가져준다는) 모든게 갑순이의 탓으로 치부한 나와 달리 어린 갑순이의 이야기를 귀기울여 들어주고, 갑순이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갑순이를 모둠활동에 참여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느껴졌다. X반 담임선생님은 적어도 나처럼 갑순이를 ‘배제’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X반 담임선생님은 3모둠을 해체하고, 다른 모둠에 통합시키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었다. 나는 X반 담임선생님의 지혜로운 대처와 한 아이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따뜻한 마음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 재작년 신규인 3년차 교사보다도 마음이 좁고 편협한 그것이 바로 나인 것이다.

나는 갑순이에게 가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이리 피곤해하는가’ 갑순이의 내가 볼 수 없는 상황을 묻고, 3모둠에게 적절한 처방을 내려주어야 했다. 그러나 나는 관찰이란 미명하에 그들을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너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되는 모둠수업! 인생은 모둠수업의 연속!

문제는 한 주 뒤에 또 일어났다.

3모둠에 가서 다시 이야기했다. ‘선생님이 너희를 돕고 싶고, 너희들이 열심히 하기 싫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고, 너희의 잠재력을 믿는다고!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냐고. 첫째, 다른 모둠에 합류해서 열심히 참여하는 것 둘째, 지금 너희 넷이 다시 의기투합하는 것 셋째, 그 외 다른 방안’ 갑순이가 다른 모둠에 가고 싶다하자,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전체 아이들에게 이야기했다. 3모둠친구들의 상황에 대하여, 친구들이 모둠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3모둠을 해체하고, 다른 모둠에 합류시키고 싶은데 혹시 이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은 모둠이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갑순이와 친한 1모둠에서 갑순이의 이름을 부르며 갑순이 함께 하자고 하자, 갑순이가 배שי 웃으며 1모둠으로 갔다. 평소 그럭저럭 밝은 병돌이는 4모둠의 민훈이가 같이 하자고 했다. 그리고 을숙이와 정팔이만 남게 되었다. 문제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반 공기가 싸해졌다. 아이들은 나와 눈을 마주치기를 피하며 자기 모둠원들끼리 '재네 우리 모둠에 안 왔으면 좋겠어'라고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별 도리가 없어 평소에 도덕적이고 모범적이었던 소영이가 있는 모둠으로 접근했다. 소영이는 "저희 모둠원이 4명인데요. 2명이 소극적이라 2명에서 다 하고 있는데, 소극적인 을숙이가 우리 모둠에 오면 저희가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푹부러지게 말했다.

그런 소영이에게 더 얘기할 수 없어 "그래, 알겠다."라고 뒤돌아서는데 참담했다. 무엇보다 그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을숙이, 정팔이'가 맘에 걸렸다. 그 반의 반장이고 반 친구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철수가 있는 5모둠에게 갔다. 철수는 대놓고 싫어하는 기색을 보였고 모둠원 아이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계속 웃기만 했다. 그러더니 "저희는 (저희끼리 해도) 괜찮아요~"라며 손사래를 쳤다. 더 이상 뭐라 할 수 없어 돌아서야 했다. 이번에는 평소 도덕적이고 모범적이었던 채연이가 있는 8모둠으로 갔는데 믿었던 채연이는 "저희 4명은 역할을 다 정해서, 을숙이가 오면 역할 정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어쩌지 싶어 입술이 바짝 말라가던 차에 그 반에서 가장 소위 좀 논다는 재훈 있는 7모둠이 날 도왔다. 재훈이가 정팔이를 데려와도 좋다는 것이었다.

까불이 승준이도 저희는 (정팔이를 데려와도) 괜찮아요 라고 했고, 의자를 내주었다. 을숙이는 그 반의 도덕부장이기도 한 승아에게 데려갔는데, 까불이같은 다른 모둠원들도 오히려 흔쾌히 그러자고 해주었다. 재훈이가, 승준이가, 승아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다. 따뜻한 시선으로 동의해준 다른 모둠원들도 너무 사랑스러웠다.

나는 세 가지에 있어 내가 잘못된 점을 찾았다.

첫째는 아이들의 성장을 돕지 않았다. 관찰평가는 의미가 없다. 관찰평가는 과정중심평가가 아니다. **올바른 과정중심평가에는 관찰 이후의 피드백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도와야 했다.** 도덕은 단순히 문제를 풀고, 해결을 완료하는 데 의미가 있는 과목이 아니다. 도덕이야말로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맺고 성찰하는 학문인데, 나는 그게 부족했다.

둘째, 내 안에 가진 편견이다. 수업에서 내가 하는 질문에 먼저 기꺼이 대답해주는' 소영이, 채연이, 철수, 병돌이는 나를 도덕적인 아이들이라고, 반면 좀 노는 재훈이와 갑순이는 비도덕적인 아이들이라고 머릿속에 쉽게 재단했다. 과연 재훈이 갑순이보다 소영이 채연이 철수가 병돌이가 더 '도덕적'일까. 그렇지 않다. **지금 모습으로는 그들의 성장을 알 수 없다. 지금 모습이 그들의 완료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루하루 성장하는 중이고, 지금의 모습만으로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예측할 수 없다.**

셋째, 중등래퍼소미디우정의 목적과 성취기준은 친구와의 우정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진정한 우정을 맺는 방법에 관해 성찰하는 것었다. 나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진정한 친구 간의 관계가 정립되길 바랐다. 이 프로젝트 중에 친구 간 서로 배척하거나 소외시킨다면 그것은 수업의 의도와 정반대되는 결과였다. 프로젝트를 완수하는데 여념없는 아이들은 교사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 역시 그 의도를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해시켜야 했는데, 그 과정과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



인생은 끊임없이 내가 좋건 싫건 그 누군가와 프로젝트를 해야 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살다보면 그럴 일은 비일비재했다. 내가 원치 않는 모둠원과 협업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병돌이가 이 프로젝트 꼭 해야 해요? 라고 물었을 때 그 어린 날 중학교 때 체육수업에서 남들 앞에 달려야 하는게 죽기보다 싫었던 내가 떠올라 병돌이의 참담함을 이해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은 그 외에도 살다보니 너무 많았다. 나 역시 대학 때 연극교양수업에서 다른 아이들이 도와주지 않아 시나리오를 쓰고 무대에서 우스꽝스러운 콩트까지 혼자 다 해내고 나오며 눈물을 한 바가지씩 흘렸던 적이 있다. 그 때 그 모둠원들과 하고는 그 이후로 만나도 인사도 하지 않았었다. 어렸고, 부족해서 그 땀 그랬다.

소영이도, 철수도, 채연이도 그 나이때는 그럴 수 있다. 학창시절 사회성이라는게 한 인간에 막 자리를 잡히는 시절. 쉽게 누군가를 배척하기도 하고 몰아세우기도 하는 잔인하고 야만적인 시절이 아닌가. 나는 그 네들에게 서운하다거나 그 아이들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세련되지 않았지만, 논리적인 근거를 대며 거절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협업하는 어려움이 어디 그 아이들뿐이겠는가.

인생은 모둠학습의 연장이다. 나 역시 우리 부서에 나이가 아주 많거나, 아예 신규이거나, 또는 성격이 까칠하거나, 업무능력에 대한 평판이 낮은 사람은 기피한다. 그게 내 진실이다. 겉으로는 누구든 괜찮아 하지만, 내 내면을 까발려보면 나 역시 우리 부서에서 나와 함께 근무할 사람은 성격도 싸싸하고, 업무능력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된 교사이길 바란다. 나 역시 전체 함께하는 프로젝트에서 내 업무에 탄지를 걸거나 자기 업무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동료들을 보면, 언제나 힘든일은 기피하고 쉬운 일만 골라하는 동료들을 보면, 표현하지 않을 뿐 알리고 싶다. 나도 그러는데, 내가 어찌 그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못하겠는가.

훌륭한 모둠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다. 대체로 어떤 모듬이든 모듬원 간의 능력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좀 더 잘하는 모듬원이 그렇지 않은 모듬원들을 살들히 보듬어 끌어주었다.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내가 이 모듬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도와야 이들의 성공에 도움이 될까를 고민하는 자세는 그 아이의 능력과 상관없이 꼭 필요한 자질이었다. 모듬의 아이들에게는 **지혜로운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고, **프로젝트를 잘 리드하고 이끄는 추진력**이 필요했다. **적재적소에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를 격려해주는 분위기**가 필요했다.

문제가 되는 모듬에도 공통점들이 있었다. **좀 더 능력있는 아이**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자기보다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을 나 혼자 다 하고 있다고, 너희는 뭐하고 있는거냐고 **질타하고 비난**했다. 선생님이나 모듬에 다가가면 "선생님 저 혼자 다 했어요. 애네들은 진짜 아무 것도 안해요."라고 말한다. 아무것도 안 한 아이들의 얼굴에 뺨뽕함과 무력감이 스친다. 나머지 모듬원들도 **나는 원래 아무 것도 못해** 라는 생각으로 어떤 의견에도 대답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다. 아예 대놓고 방해하거나 탄지를 걸거나 "우리 모듬 망했어"라며 **부정적인 소리를 쏘아낸다**. 누가 의견을 내면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된다" "**어차피 해도 안돼**"며 시크하게 태클을 건다. 모듬원은 마음을 합치지 못하고 결국 그 프로젝트와 모듬은 망하고 만다.

사회생활은 때론 내 맘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해야 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아마도 또 다른 프로젝트가 다른 교과에서 기

다리고 있을 것이다. 1학기가 끝나면, 2학기 때 또 나와 다른 아이들과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 때도 내 맘에 들지 않는 프로젝트라고 해서, 내 맘에 들지 않는 모듬원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은 또 무기력하게 방관해야 할 것인가? 그 사실을 끊기 위해 **끊임없이 '함께 하는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고, 체화하도록 하는 것이 도덕교사로서 나의 역할일 것이다.**

나의 문제의 원인은 '이쯤해도 되겠지'하는 안일한 생각과 작년에 한 번 해본 경험으로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자신감 때문에 발생했다. 모든 수업이, 모든 관계가 충실해야 한다는 진리를 망각한 것이다. 생물과도 같은 수업을, 생명력을 뿜내는 아이들을,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자만의 탓이리라. **그러니 오늘도 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매일 관계를 가꾸기 위한 현재의 노력'이다.** 그리고 나 역시 인생이라는 큰 모듬학습에서 '함께 하는 가치'를 매일 되새겨야 한다. 갑순이를 배제한 것처럼, 또 어떤 수업시간에서 또는 어떤 학교생활에서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글 | 이정은 (혁신교육부)



중학교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만큼 아이들과 붙어있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1학년 아이들은 항상 ‘뽕 보고싶어요~’ ‘왜 이렇게 볼 시간이 없죠?’라며 귀여운 애교를 띤다. 이런 이쁜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적어서 나도 많이 아쉬웠다. 그래서 이번엔 단합활동을 하여 조금 더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였다. 작년에 단합활동을 했을 땐 3학년 아이들이라 자기들이 알아서 언제할지, 뭘 먹을지, 무엇을 할지 계획을 다 짜서 손 가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올해 1학년을 맡아보며 담임으로서 처음으로 단합계획을 짜보고 단합활동을 해보았다.

“단답이요?”

먼저 아이들에게 단합하자고 말을 꺼내었다. 단합하자고 했더니 ‘단답이요?’하면서 엉뚱한 대답을 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었다. 그래서 ‘단합은 우리 반 아이들과랑 다 모여서 노는 거야’라고 했더니 아직 정확히 뭘 할지도 모르는데 들뜬 것이 귀여웠다. 먼저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활동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물총놀이, 담력훈련, 런닝맨이 나왔다. 아이들의 아이디어에 활동을 조금 덧붙여 계획서를 완성하였다. 준비단계에서는 반장과 부반장 그리고 행사부장 3명을 주축으로 준비를 하였다.

오른쪽 사진은 계획서이자 가정통신문이다. 출력하여 나누어준 후 밑에 학부모 동의서를 받았다. 학부모 밴드에서도 알리를 해드렸다. 방과 후에 하는 단합활동이라서 늦게 귀가하기 때문에 모두 동의를 해주실까 걱정하였는데 다행히 모든 학부모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셨다. 덕분에 우리 학급 구성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단합을 계획할 수 있었다.

다 같이 즐거운 1학년 1반 학급단합활동

1. 시합종 : 목적 및는 1학년 1반 정리작 교육활동

2. 목적 : 목적 활동, 문화 활동, 조별 게임을 통한 학급 단합

3. 일시 : 7. 월, 월요일 ~ 2018년 6월 15일(금) 15:30~20:00
나. 안전 교육 실시 일시 ~ 2018년 6월 15일(금) 15:05~15:30

4. 대상 : 1학년 1반 학생 31명, 담임교사 1명

5. 할 구성

분류

책임

교수번호

학수번호

6. 프로그램 간행

가. 반 체육 대회 및 문화 활동 ~ 체육관 및 교실(15:05~20:00)

일 정

활동 내용

활동 장소

담당자

15:05~15:30

안전교육

교실

교장

15:30~16:30

물총놀이

교실

교장

16:30~17:30

물총놀이

운동장

수강, 여분

17:30~18:30

물총놀이

운동장

수강, 여분

18:30~19:30

물총놀이

운동장

수강, 여분

19:30~20:00

물총놀이

운동장

수강, 여분

19:30~19:40

물총놀이

운동장

수강, 여분

19:40~20:00

물총놀이

운동장

수강, 여분

7. 유의사항

★ 교실 및 체육관 내 안전사고를 주의한다.

★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8. 기타

본 활동은 1학년 1반 학생 31명, 담임교사 1명

본 활동은 1학년 1반 학생 31명, 담임교사 1명

▲ 학급단합대회 가정통신문

JUNE 2018

CLASS

군자중학교

일 정	활동 내용	활동 장소	준비물	비 고
15:05~15:30	안전교육	교실	안전교육자료	
15:30~16:30	ice breaking 조별 게임	교실	스케치북, 노트북, 물병	스피드게임, 노래맞추기, 풍당풍당, 물병세우기, 상표이름대기, 문장만들기게임, 한음 오래걸기, 네글자퀴즈, 팔씨름대회, 친구얼굴그리기
16:30~17:30	체육활동	운동장	물총, 수건, 여분 옷	물총게임
17:30~18:30	저녁식사	교실	개별준비	영화
18:30~19:00	노래자랑	교실	무선마이크, 노트북	
19:00~19:30	전략스래잡기	교실 및 운동장	방울, 보물찾기종이, 핸드폰 소지	이동시 경보
19:30~19:40	단체사진촬영		삼각대	
19:40~20:00	종례 및 정리정돈	교실 및 운동장	상품	

▶ 구체화된
단합대회 계획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였던 활동을 위의 표처럼 더 구체화하였다. 계획은 위와 같이 세웠으나 다른 반의 단합활동과 겹쳐서 순서를 바꾸게 되었다. 그래서 실제 진행은 안전교육-체육활동(물총게임)-조별게임(미니게임)-장기자랑-저녁식사-슬래잡기(경찰과 도둑)-종례 순으로 진행되었다.

단합활동 시작!!

단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 아닐까 싶다. 학생들이 뛰놀다보니 넘어지거나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1학년이라 더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단합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음 3가지를 강조하였다.

1. 경보이동
2. 무단이탈금지
3. 지시 잘 따르기

먼저 물총놀이 전(제일 끝날할 때) 단체사진을 찍고, 물총을 들고 나가서 물총놀이를 했다. 물총놀이도 처음에는 팀을 나누어서 서로 쏘게 하려하였으나 아이들이 개인전을 선호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다. 물총만 쥐어줬더니 한 시간 이상을 즐겁게 노는 아이들이었다.

물총놀이 후 미니게임을 진행하였다. 다양한 것을 하려 했으나, 뛰고 들어와서 그런지 지쳐보였다. 배고프다고 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저녁이 도착할 때까지 간단한 게임을 하며 쉬었다. 무서운 영상을 보며 다 같이 저녁을 먹었다. 역시 친구들을 놀라게 하는 장난을 치는 아이들이 많았다. 이후 아이들이 기다리던 경찰과 도둑을 하였다. 다른 반 친구들은 1,2층과 밖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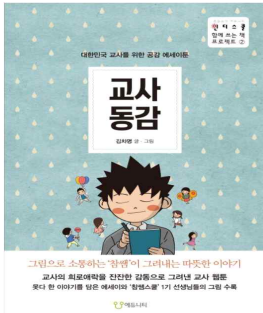
▲ 물총놀이 Before & After

35

36

책

교사동감



김차명 저
에듀니티
2011.03.17.

학교에서 교사가 겪는 여러 에피소드들이 그림과 짧은 에세이로 나와있어서 쉽게 술술 읽히는 책이었지만 오히려 읽고 나서 여운이 긴 책이었다.

나에게 가장 생각할 거리를 주었던 부분은 '22. 우리는 왜 힘든가였다.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대한다는 점, 투입되는 노력에 비해 산출물이 바로 나오지 않아 상황이 변화하기 까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특히 공감했다.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들은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들에게 오히려 무력감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의 책임은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되기 쉽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사가 책임지는 여러 업무 중 (30명 이상되는 학생의 생활지도, 안전지도, 행정업무, 수업, 상담 등)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담당 교사가 책임을 져야한다. 그런데 이런 여러 문제들 중 개인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모두가 바쁘고 책임져야 할 것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 교사들은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고, 누군가 힘들어 하더라도 안타깝지만 그 것은 그 개인의 불행 혹은 역량 부족으로 인식되고는 한다.

이 책은 이러한 교사들의 고충을 다뤘고 많은 교사들이 동감했다. 나는 이 부분이 이 책의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오늘 하루가 그저 문제없이 지나가길 바라기보다는 나와 내 주변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변화의 문제를 세상으로 내놓시킨 것.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같이 공감하며 새로운 변화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미래가 더 희망차질 거라고 생각한다.

글 | 김소라(혁신교육부)

책

교사생활월령기



경기도교육연구소 저
에듀니티
2017.11.10.

‘요새 마음이 편치 않다. 달라진 아이들의 모습은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문제였을까,,계속 생각해 보지만 출구를 찾는 건 힘들어 보인다. 그러나 나에게 문제의 답이 있겠지.’ 하고 고민을 하던 나에게 이 책이 왔다.

월별로 주제가 나뉘어 있었기에 일단 관심이 가는 주제부터 보기 시작했다.

<불편하지만 성찰해야 할 차별과 낙인>
책 구절 중에 이 부분에 나는 밑줄을 그었다. 학생을 이해 못하는 교사, 그런 교사를 이해 못하는 학생. 그래 이게 딱 지금의 나일지도 모른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로 학생들을 재단하고 있기 때문에 부딪치고 힘든 것이 아닐까.

학생들에게만 다른 시선과 입장에 대한 열린 자세를 가르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바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찢림이 있다는 건, 울컥한다는 건, 내 안에 그 모습이 있기 때문인거니까. 조심스럽게 더 마음을 열고 학생들에게 더 다가가 보려고 한다. 모든 것이 버겁지만, 아직은 더 노력해 볼 수 있음이,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배우고 있기 때문에.

글 | 정승희 (교무기획부)

영화

당갈



영화 세월간이를 즐겁게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갈과 사랑에 빠질 것이다. 세월간이에서 란초를 열연한 아미르 칸이 다시 주연을 맡아, 노년기까지 연기한다. 영화 초반 서치를 벗어던지면 근육질의 아미르칸의 몸이 노출되는데 영화를 위해 몸집을 불렸을 피나는 노력이 영화의 몰입을 더한다.

당갈은 힌두어로 레슬링을 뜻한다고 한다. 2010년 인도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첫 금메달을 딴 인도여성 레슬러 기타포갯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영화 속 여주인공이 아버지의 욕망 투영의 대상으로 전락하는게 아닌가 싶어 반감이 생길 즈음 딸은 스스로 레슬링 선수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욕망하게 된다. 딸의 친구는 인도여성으로서의 누구나 선택할 수 없는 운명적 삶이 아닌 주체적인 삶을 살게 되는 친구를 진심으로 부러워한다.

영화 속 배경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비일비재한 지역이라는게 놀랍다. 이 영화를 보고나서 나는 온 몸이 아팠는데, 그만큼 영화의 흡입력이 장난이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는 대중적이고, 사랑스럽다. 전교생에게 보여주고 싶고, 전교직원 문화의 날에 함께 봐도 좋을 영화이다. 감동, 재미, 연기 어떤 것도 빠지지않아 않는다. 강추!

영화

보리 VS 매켄로



이 영화는 1980년 워블던 테니스 대회의 결승전을 배경으로 뷔에른 보리와 존 맥켄로의 경기를 담고 있다. 이미 워블던 4연패를 달성하고 5연패를 바라보는 보리와 이에 맞선 미국의 매켄로!

완벽에 가까운 자기관리를 하며 좀처럼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보리와 코트계의 악동으로 불리며 심판과 관중에게 욕설과 항의도 서슴지 않는 매켄로. 이 둘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또 같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승리에 대한 열망, 경기할 때마다 찾아오는 중압감,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품과도 같은 대중과 언론의 환호는 그들과 우리를 기쁘게도 하지만 피로하게도 한다.

영화는 그 둘의 심리를 따라가 그들이 겪을 중압감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한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 가려진 그들의 고뇌와 노력, 무엇보다 스스로와의 싸움을 지켜보며 나는 보리와 매켄로를 간절히 마음으로 응원했다.

신으로 불리우는 술한 스포츠스타들이 있다. 그들의 타고난 재능이, 인간 한계에 도전하는 강박에도 가까운 노력이, 그리고 노력한만큼 얻게 되는 값진 성취와 보상이 질투나 리만큼 부러웠지만, 그러한 스포츠스타와 동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쁨을 느꼈다.

공교롭게 두 영화 다 스포츠 영화라 어느 한 영화를 다른 영화로 바꿀까 고민했지만 2/4분기 가장 좋은 영화들이었다. 무엇보다 학생들과 함께 보기 좋은 영화이다.

글 | 이정은(혁신교육부)



발행일	2018년 6월 30일
발행처	역량기반수업연구회(#수업태그)
발행인	군자중학교교장 박용국
편 집	군자중학교 혁신교육부
기 획	역량기반수업연구회(#수업태그)